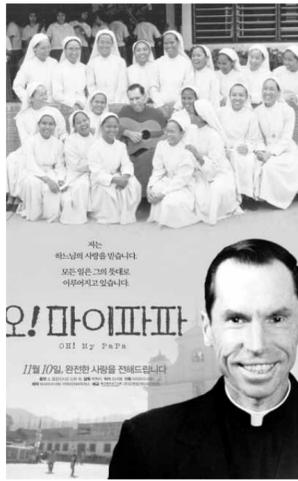


# 상처받은 마음 ... 종교영화로 달래보자



소알로이시오 신부 다큐 '오 마이 파파'

은 나라가 뒤숭숭한 시이다. 누군가는 한마디 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는 노력해도 합당한 대가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진다. 이럴 땐 성직자들의 힐링 메시지가 위안을 준다. 종교를 초월해 마음의 위로와 안락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광주극장이 11월 성직자들의 일대기와 정신을 소개하는 종교 영화를 준비했다.

14일 개봉하는 '오 마이 파파'(감독 박희지)는 1950년대 부산에 정착해 마리아 수녀회를 창설한 소 알로이시오 신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엮은 다큐멘터리이다.

한국 이름은 소재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산에 고아원, '소년의 집', 병원을 만들며 다시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여정 '순종'

광주극장, 성직자들의 힐링 메시지로 마음의 위로 선물

도솔 김용옥 교수 만주 여정 '나의 살던 고향은'도 상영

생명력을 풀어놓기 위해 노력했다. 기부금이 생길 때마다 '소년의 집' 운영비용으로 기꺼이 내놓는 등 정작 본인은 낡고 많은 의복과 구두였던 소 신부의 의지를 비추었다.

21일에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 아픈 영혼을 달래주는 김은혜·김영화 선교사 이야기를 담은 '순종'(감독 김동민·이주환)을 상영한다. 이 영화는 CBS가 최초로 제작한 극장용 영화이다.

김은혜 선교사는 우간다에서 선교사 아버지의 삶을 이어 받아 봉사에 헌신했다. 덩기디 마을은 내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이 모여 사는 곳이다. 반군에게 부모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심한 발작을 일으킨다. 김 선교사는 사랑으로 이들을 보살피려 하지만 살아생전 가족들보다 덩기디 마을사람들을 챙겼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지우지 못한다. 김영화 선교사는 중동 테러단체 IS의 온갖 만행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레바논 난민촌을 방문한다. 염마를 잃고 세상과 단절하며 살고 있는 소년 '알리'를 만나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한다.

텔런트 최강희, 최수종이 나레이션을 맡

아 진심어린 감동을 전해준다.

종교영화 이외에도 '나의 살던 고향은'(24일)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영화다. 고구려, 발해 흔적을 찾아서 압록강에서부터 만주벌판까지 찾은 도솔 김용옥 교수의 여정을 다뤘다. 류중현 감독과 함께 발견을 한 만주벌판에서 '나이 질십이여 처음 찾아왔다'며 한탄했던 김 교수와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이다.

또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14일), '연애담'(20일), '아근 대신 뜨개질'(21일) 등 다양한 영화도 만날 수 있다.

자세한 일정 홈페이지(cafe.naver.com/cinemagwangju) 참조.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노르웨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영 스트링스' 공연

내일 전남대 민주마루...비올리스트 링스타드 출연

노르웨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사진)의 연주를 들을 기회가 마련됐다.

전남대는 15일 오후 7시30분 학교 민주마루(구 대강당)에서 노르웨이 '영 스트링스' 내한공연을 연다.

이번 무대는 민주마루 개관을 기념해 지난 8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기념 페스티벌의 하나로, 독창적 해석과 깊이 있는 연주로 주목받는 청소년 현악 합주단 '노르웨이 영 스트링스'가 무대에 오른다.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정순미 교수

에 의해 창단됐고 노르웨이 음악교육 기관인 '바렛 듀(Barrett Due)'의 19세 이하 영재들로 구성됐다. 노벨상 시상식 축하공연과 노르웨이왕실 주최 공연은 물론 런던, 나폴리, 베이징 등 세계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공연했다.

이날 공연에는 비엔나 유로비전 콩쿨 우승(2012년)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올리스트 엘빈드 호르츠마크 링스타드가 출연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환기 노란색 전면점화 홍콩 경매 출품

추정가 45억~58억...최고가 경신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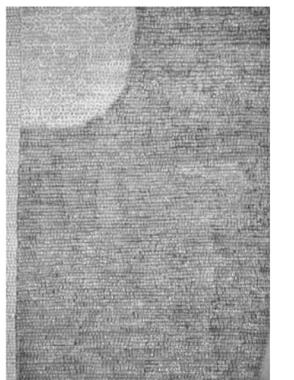
'추상미술의 선구자'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의 노란색 전면점화가 경매에 출품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환기 작품은 지난해만 3차례에 걸쳐 한국 근현대 미술품의 최고가 경매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그의 작품으로는 드문 노란색 전면점화라는 점에서도.

서울옥션은 27일 오후 6시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20회 홍콩경매'를 열어 김환기의 '12-V-70 #172'를 비롯해 123점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김환기의 '12-V-70 #172'는 이번 경매에 최고가로 출품되는 작품으로 추정가가 45억~58억원이다. 높이 2m가 넘는 대작인 이 작품은 이른바 '뉴욕 시대'인 1970년 그려진 것으로 전체 색상이 노란색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김환기의 전면점화는 대부분 파란색으로, 노란색의 작품은 아주 소수만 남아있다고 서울옥션은 설명했다. 이



'12-V-70 #172'

때문에 이번 경매에 나온 작품이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 K옥션에서 열린 경매에서 김환기의 '무제 27-VII-72 #228'은 54억원에 낙찰되며 국내 경매시장 최고가 낙찰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연합뉴스

##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 김설아 작가 개인전

12월 6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지역 출신으로 '2016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에 참여했던 김설아 작가가 14일부터 12월6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우리는 먼지 속을 기어 갔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로터스갤러리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신인작가 지원전이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벌레 형상으로 인간 의식 흐름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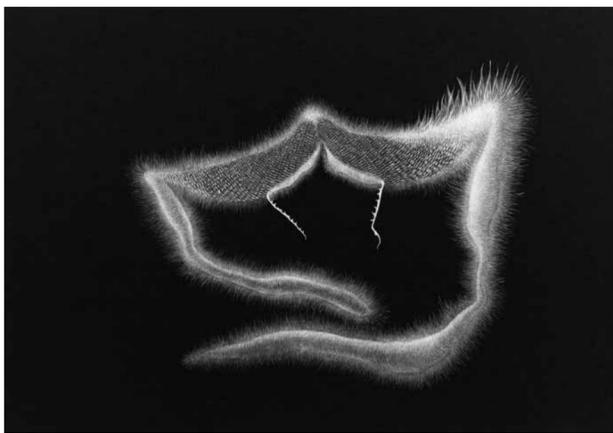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경험을 내면 의식과 융합해 구체화 시킨다.

작품 'Blind ash'(검은 재)는 어느날 작업공간에 불이 나 재로 변했던 기억을 담

았다. 검은 재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벌레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었다. 촘촘한 벌레 다리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한편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자유로운 의식 상태가 느껴진다.

김씨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인도 바르다 마하라자 사아지라오 예술대학 순수예술학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Between Wishes and Desires'(2006)을 시작으로 인도에서 'Momentary Sonorant'를 여는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 062-383-010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Blind ash(검은 재)'

진월 · 효천지구 초입구 사거리

# SH SH BUILDING

광주 남구 행암동 699번지 전용률 83%, 대지면적 1,826,90㎡, 지상 4층, 주차장 36대

## 임대·분양

진월지구,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 중심지, 빚고울 CC 노인건강타운과 전남대병원,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1층	금융, 약국, 의류, 커피숍, 안경(입점확정), 호프, 식당
2층	의원, 커피숍, 스킨케어샵, 치과, 학원, 사무실
3층	패밀리레스토랑, 요가, 의원, 휘트니스 등, 학원, 사무실
4층	495㎡, 한식,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4층 테라스 무료사용가능(150평)

방지분 상가지분 각 상가 개별등기 가능 준공필

문의: (062)676-4006 · 010-5681-4015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중합건설(주)

##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 · 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라이프 유탑유블레스

- 양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망!
- 전세값으로 새아파트 사재!
- 계약금 5%!(1,100만원~내집마련)
- 2억 초반대~중소형 아파트~!
-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계약금 5%로 내집마련 (내집마련 100% 지원)

분양문의 (062) 351-4610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주)유탑디앤씨 (주)유탑건설 (주)유탑